

D201 / 2005. 12.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

김 연 중 부 연구 위원
Allan N. Rae 매시대학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연 중 부 연구 위원 1, 3, 4장 집필
Allan N. Rae 매시대학교수 2장 집필

머 리 말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하여 자연 조건상 농산물 수출에서 북반구 나라들보다 유리하다. 뉴질랜드는 북반구에서 키위가 나지 않는 철에 EU, 한국, 일본, 타이완 등에 키위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키위를 일 년 내내 소비하고 있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키위가 나지 않는 철에는 수입할 수밖에 없고,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의 키위 자급률은 30%였는데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의 키위 총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골드 키위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제스프리(Zespri)는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키위를 공급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하고 있다.

뉴질랜드산 키위가 칠레산보다 품질 경쟁력은 앞서나 최근 한·칠레 FTA 협상 체결로 칠레보다 가격경쟁력은 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키위를 공급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키위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보고서가 키위의 생산, 출하, 수출입과 관련된 정부 당국, 재배 농가, 수입 업체, 생산자 단체, 연구자 등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세계 키위생산량은 이탈리아가 가장 많고, 뉴질랜드, 칠레 순이다. 뉴질랜드 재배면적은 1988년까지 증가한 후 이후 연평균 3.6%씩 감소하여 2004년 당시 1만 600ha이다.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2004년 생산량은 26만 톤이다.

뉴질랜드 키위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비주산지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뉴질랜드 키위 주산지는 북섬 Bay of Plenty 지역으로 2004년 당시 뉴질랜드 총 재배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주요 품종 재배면적 비중은 Green 81%, Organic 5%, Gold 14%이다. Green 키위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Gold 키위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키위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키위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 지역이 단경기일 때 생산되므로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내 인구가 적어 내수가 적은 국가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생산량 80% 이상을 북반구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주수출국은 EU12개국, 일본, 한국,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순이다. 최근 EU12개국의 수출 비중은 작아지고 일본, 한국, 타이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키위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주년 소비체제로 전환되었다. 한국 키위 생산이 단경기 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입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2004년 키위 자급률은 30%밖에 되지 않으며 자급률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위 1인당 소비량은 이탈리아가 1.7kg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그리스, 뉴질랜드, 칠레, 일본, 한국 순이다. 한국 1인당 소비량은 2004년에 0.48kg에서 2014년에는 현재 일본 소비 수준인 0.62kg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우리나라 공급량 3만 3천 톤에서 2014년에는 4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키위 자급률은 2004년에 30%, 수입의존도가 70%이다. 수입량 중에서 뉴질랜드 비율이 83%, 미국 8%, 칠레가 9%이었다. 한·칠레 FTA 협상이 2004년 4월 1일자로 체결되면서 2005년 이후 키위 수입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2005년은 키위 자급률이 29%, 수입의존도가 69%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수입량 중에서 뉴질랜드 비율이 68%로 크게 감소하였고 칠레가 24%로 크게 늘었다.

한·칠레 FTA 협상 체결로 칠레산 키위는 10년 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2005년 관세는 뉴질랜드산 45%, 칠레산 40.5%, 10년 후 2014년은 뉴질랜드산 40.5%, 칠레산은 0%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4년 수입량은 뉴질랜드산이 9천 톤(21%), 칠레산이 1만 8천 톤(41%)으로 추정된다.

향후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이 국내 시장에서 경합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칠레산은 뉴질랜드산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키위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키위를 주년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국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골드 키위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면서 칠레산보다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유통망이 확보된 국내 유통사업단과 연계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키위에 대한 영양학적인 연구와 함께 요리·시식 방법을 개발하여 수요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The Situation and Prospects of Kiwifruit Industry New Zealand

World productions of kiwifruit are mainly produced in Italy, followed by New Zealand and Chile. Growing areas of New Zealand had substantially increased by 1998, but have been decreasing 3.6% per year to reach 16,000 hectares in 2004. Kiwifruit productions in New Zealand have been increasing since 1995. New Zealand produced 260,000 tones of kiwifruit in 2004. The kiwifruit production of South Korea has reduced recently, but high consumer demand for kiwifruit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every year. A shortage of kiwifruit in South Korea may require importing kiwifruit from overseas, therefore South Korea would ne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quantity of kiwifruit every year. Production of kiwifruit in South Korea produced locally about 30% in 2004, and the rest, 70%, is dependent on imports from overseas. Among kiwifruit being imported, the ratios of imports to South Korea are 83% from New Zealand, 8% from USA and 9% from Chile. Contracted FTA trade between Korea and Chile, kiwifruit from New Zealand is of a higher quality than from Chile, but the price of Chilean kiwifruit is predicted to be cheaper. By 2014, more Chilean kiwifruit (18,000 tones, 41%) is predicted to be imported than from New Zealand (9,000 tones, 21%)

The method of collaboration betwee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is off season in South Korea. New Zealand kiwifruit exports are good, safe and of high quality to Korean consumers. At present, ZESPRI has contracted with Korean kiwifruit growers (especially Jeju Island) and will be extending the growing areas to provide all year around to consumers. ZESPRI has also provided and transferred production technology to Korean kiwifruit growers. Imported Kiwifruit from New Zealand distributed through Korea Agricultural Marketing information Service would be researched.

Researchers: Yean-Jung Kim, Allan N. Rae

E-mail address: yjkim@krei.re.kr, A.N.Rae@massey.ac.nz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2
제2장 뉴질랜드 키위 현황	3
1. 원예산업에서 키위 위치	3
2. 키위 도입과 성장 과정	8
3. 뉴질랜드 정부지원정책	10
제3장 뉴질랜드 키위 수급 동향과 전망	11
1. 키위 생산·소비 동향과 전망	11
2. 키위 유통부문의 동향	16
3. 키위 수출입 동향과 전망	19
제4장 한·뉴질랜드 키위산업 협력 가능성	26
1. 한국의 키위 수급 현황	26
2. 한국의 키위 수급·수출입 전망	31
3. 한·뉴질랜드 키위산업 부문별 협력	33
참고 문헌	35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주요 과일 재배동향	3
표 2- 2. 주요 품목 주산지 재배면적, 2003	4
표 2- 3. 뉴질랜드 키위 수출 국가별 비중	6
표 2- 4. 품목별 수출액 추이	7
표 2- 5. 키위 수출액 추이	8

제3장

표 3- 1. 세계 주요국 키위 재배면적 동향, 2004	11
표 3- 2. 뉴질랜드 키위 생산 현황	12
표 3- 3. 키위 품종별 재배면적 및 생산 실적, 2003	14
표 3- 4. 뉴질랜드 키위 생산비	15
표 3- 5. 키위 품종별 농가 수취가격	15
표 3- 6. 키위 생산·수출·가격 전망	16
표 3- 7. 뉴질랜드 키위 수출입 동향	19
표 3- 8. 뉴질랜드 키위 국별 수출 실적	20
표 3- 9. 키위 품종별 수출액	21
표 3-10. 품종별 포장 방법	23
표 3-11. 키위 생산·수출·가격 전망	25

제4장

표 4- 1. 한국의 키위 생산 현황	27
표 4- 2. 한국의 키위 수입량	28

표 4- 3. 한국의 키위 수출량	29
표 4- 4. 키위 국가별 수입 시기 및 국내산 출하 시기	29
표 4- 5. 키위 국가별 월별 수입량 비중, 2004	30
표 4- 6. 한국의 키위 수급 현황	30
표 4- 7. 키위 1인당 소비량, 2003	31
표 4- 8. 한국의 키위 수급 전망	33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주요 과일 주산지 분포	5
----------------------------	---

제3장

그림 3-1. 키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2
그림 3-2. 뉴질랜드 키위의 유통경로	18
그림 3-3. 해외 주요 키위 공급원	22
그림 3-4. 키위 품종별 포장 형태	24
그림 3-5. 키위 수출량과 농가 수취가격	25

제4장

그림 4-1. 국별 키위 수입량 변화	28
그림 4-2. 한국 키위 수급전망	32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키위 수급에서 국내 생산량 비중이 적어지면서 뉴질랜드와 칠레 수입량 비중이 높아 가고 있다.¹ 우리나라 전체 공급량 중에서 뉴질랜드 수입 비중은 57%로 국내 생산량보다 뉴질랜드 수입량이 많아 뉴질랜드 키위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키위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수요 증가로 소비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입량은 매년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키위 수입량 중에서 뉴질랜드산과 칠레산 수입 비율이 한·칠레 FTA 협상 이후 달라지고 있고, 향후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이 국내 시장에서 국산과는 보완 관계를 이루지만, 그들 간에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이 한국산과는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뉴질랜드산 키위가 발전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¹ 키위 자급률은 1996년 66%에서 이후 감소하여 2004년에는 30%임.

2. 연구 범위와 방법

우리나라 키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이다. 총공급량 중 국내 생산량은 30%, 수입량이 70%로 자급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다.

미국산 키위는 국내 생산시기와 비슷하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국내산과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키위 단경기 때 수입되고 있는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은 우리나라 키위와 보완 관계에 있다.

2004년 국내 수입량 중에서 뉴질랜드 수입량이 83%, 미국 8%, 칠레 9%이므로 키위 연구 범위는 국내산, 수입국 중 뉴질랜드산, 칠레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제2장에서는 뉴질랜드 키위 산업의 현황으로 키위의 도입과정과 성장, 생산량, 주산지 및 품종의 변화, 정부정책 등을 다루었고, 제3장에서는 뉴질랜드의 생산·수출을 집중적으로 보고, 향후 생산·수출 전망을 2008년까지 전망해 보았다.

제4장에서 한국의 키위 생산, 수출입 등 수급을 10년 이후까지 전망하고, 뉴질랜드산, 칠레산이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과 가능량을 추정하였다. 특히, 칠레와 2004년에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 간 수입량 변화를 보고, 제스프리(Zespri) 한국지사, 참다래 영농조합 담당자와 면담조사로 뉴질랜드와 한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키위는 향후 수입 가격이 낮아지고 수입량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소비 대체 과일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장

뉴질랜드 키위 현황

1. 원예산업에서 키위 위치

1.1. 주요 원예작물 재배면적

뉴질랜드 원예작물 재배면적 중에서 과일류 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채소류가 30%이다. 뉴질랜드 자연조건에 의해 아열대과일에서부터 온대과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많다. 과일 중에서 재배면적이 큰 순은 와인포도, 사과, 키위, 아보카도이다.

표 2-1. 주요 과일 재배동향

단위: ha

	1993	2000	2002	2003	2004	주산지
사과	12,937	14,114	12,799	12,150	12,150	Hawke's Bay
키위	14,099	12,184	11,964	12,360	10,580	Bay of Plenty
아보카도	1,260	2,646	3,160	3,230	4,000	Bay of Plenty, Northland
포도	5,663	12,665	17,300	19,650	18,266	Mariborough, Gisborne, Hawke's Bay

자료: Statistics NZ, Agriculture Statistics.

키위 재배면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가내 와인 공장 설립이 늘어나면서 남섬지역에 포도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보카도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으나, 과일에서 주종을 이루는 사과와 키위는 재배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주요 작물 주산지

뉴질랜드 원예작물은 기후적으로 북섬 북쪽 지역과 동부 해안지역, 남섬 동부 해안지역 등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 2-2. 주요 품목 주산지 재배면적, 2003. 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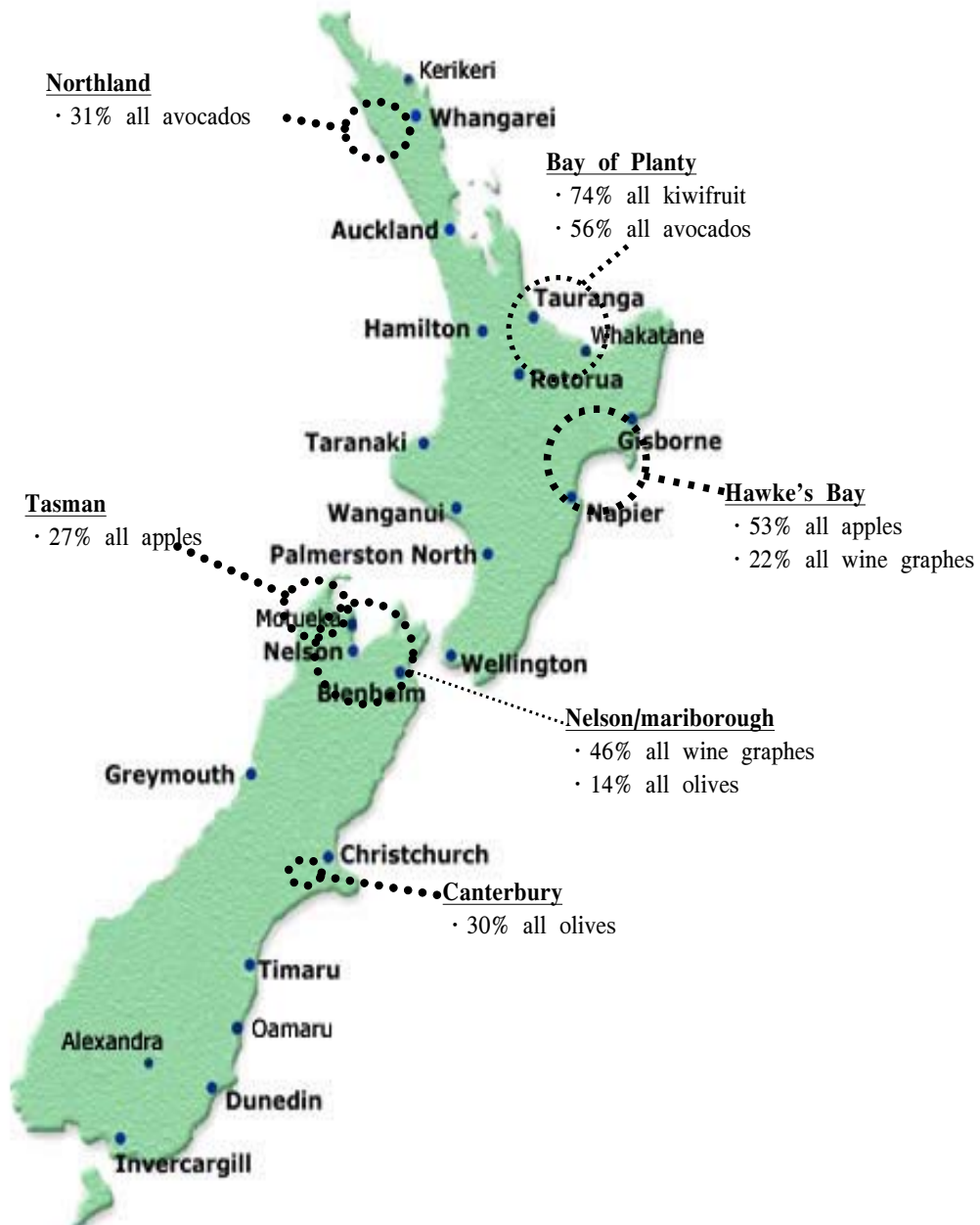
단위: ha

	지역	사과	키위	아보카도	포도	올리브
N o r t h	Northland	50	600	1,010	50	S
	Auckland	200	510	140	S	290
	Waikato	280	790	S	160	S
	Bay of Plenty	S	9,150	1,800	S	S
	Gisborne	260	270	60	1,600	20
	Hawke's Bay	6,400	270	30	4,270	260
	Taranaki	C	40	50	C	10
	Manawatu	C	140	S	C	S
	Wellington	250	10	S	910	310
North Island		7,590	11,780	3,220	7,800	1,300
S o u t h	Tasman	3,270	550	S	610	150
	Mariborough	230	0	0	9,070	390
	Canterbury	260	S	S	870	830
	Otago	720	10	0	S	S
South Island		4,560	580	S	11,850	1,430
TOTAL		12,150	12,360	3,230	19,650	2,730

주: C는 일정, S 자료가 없음.

자료: www.stats.govt.nz

그림 2-1. 주요 과일 주산지 분포



키위 재배면적은 북섬이 전체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북섬 중에서 Bay of Plenty 지역이 78%를 재배하는 주산지이다. 나머지는 Waikato, Wellington 그리고 Auckland이다. 아보카도 재배면적은 북섬이 100%이고 Bay of Plenty 지역이 56%, Northland 지역이 31%이다. 사과 재배면적은 북섬과 남섬이 비슷하고 북섬에서는 Hawke's Bay가 주산지이고, 남섬에서는 Tasman이 주산지이다. 와인 포도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포도는 남섬 재배면적이 북섬보다 넓다. 주산지는 남섬에서는 Mariborough지역, 북섬에서는 Hawke's Bay 지역이다.

1.3. 원예작물 수출 동향

뉴질랜드에서 키위를 처음으로 수출한 국가는 영국이다. 그 후 수출국은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유럽 국가 등이다. 최근에는 일본과 북동아시아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북동아시아는 타이완, 홍콩 그리고 한국 등이며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대한국 수출 비중은 0.2%였으나 2004년에는 7.4%로 급성장했다.

뉴질랜드 원예작물 수출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1990년에 10억 달러(NZ)에서 2004년에는 22억 달러(NZ)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3. 뉴질랜드의 키위 수출 국가별 비중

단위: %

	1990	1995	2000	2004
EU 12개국	58.0	61.6	56.9	52.1
미국	13.6	0.2	6.9	3.7
일본	25.0	30.9	29.1	32.4
오스트레일리아	3.2	5.6	5.6	4.5
한국	0.2	1.7	1.5	7.4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4. Wellington.

표 2-4. 품목별 수출액 추이

단위: 천 NZ\$, (%)

	1990	1995	2000	2004
Kiwifruit	474,884	320,817	458,964	658,789(29.9)
Apples	212,553	343,569	404,346	485,194(22.0)
European Pears	2,045	10,009	15,586	9,295(0.4)
Nashi	3,601	2,607	620	287(0.1)
Avocados	3,355	9,176	25,233	26,959(1.2)
Persimmons	2,671	7,275	7,385	8,085(0.4)
Summerfruit	9,394	13,193	14,709	19,690(0.9)
Berryfruit	8,692	9,905	16,822	12,590(0.6)
Citrus	1,068	2,979	9,265	7,102(0.3)
Other fresh fruit	5,383	8,187	5,514	3,761(0.2)
Total fresh fruit	723,648	727,717	958,444	1,231,752(55.9)
Squash	37,451	57,745	60,354	53,488(2.4)
Onions	37,650	92,538	78,507	91,908(4.2)
Asparagus	7,007	10,176	12,215	7,116(0.3)
Potatoes	5,585	13,750	13,173	13,597(0.6)
Other fresh vegetables	10,460	19,965	50,007	50,634(2.3)
Total fresh vegetables	98,152	194,174	214,256	216,744(9.8)
Total processed fruit	46,981	93,174	77,612	92,073(4.2)
Frozen Peas	24,257	34,300	41,094	38,535(1.8)
Frozen Corn	14,405	23,273	38,571	39,578(1.8)
Frozen Mixed Vegetables	10,503	23,828	28,029	34,042(1.5)
Dried Peas	6	23,479	21,445	22,483(1.0)
Vegetable Preparations	30,987	51,997	45,719	118,511(5.4)
Other processed vegetables	51,385	21,746	27,418	31,797(1.4)
Total processed vegetables	131,544	178,623	202,276	284,945(12.9)
Flowers	18,562	49,795	46,251	39,083(1.8)
Foliage	10,993	17,540	15,834	405(0.1)
Bulbs & Plants	4,569	9,737	17,367	36,588(1.7)
Wine	20,340	42,521	177,195	300,222(13.6)
Flowers, Plants and Wine	54,464	119,594	256,648	376,297(17.1)
Total horticultural exports	1,054,789	1,313,281	1,709,235	2,201,810(100.0)

주: ()는 구성비임.

자료: MAF, 2004.

표 2-5. 키위 수출액 추이

단위: 천 NZ\$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320,817	458,964	594,920	618,446	538,988	658,789

자료: MAF, 2004.

2004년 수출 실적을 유별로 보면, 신선과일 56%로 가장 많고, 화훼, 포도주가 17%, 가공채소 13%, 신선채소 10%, 가공과일 4% 순이다. 단일 품목으로 수출이 많은 품목은 원예작물 중에서 키위가 30%, 사과 22%이다.

키위 수출은 매년 증가하였다. 1995년 3억 2천 달러(NZ)에서 2004년에 6억 6천만 달러로 급성장하였다.

2. 키위 도입과 성장 과정

뉴질랜드 키위 종자는 중국을 방문했던 선교사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19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종자는 뉴질랜드 육묘장에 넘겨져 실험실에서 배양되어 1916년에 ‘구즈베리’라는 이름으로 농가에 보급되었다. 향후 종자가 개량되어 1930년에는 과일의 크기가 크고, 저장성이 강한 Hayward라는 품종으로 개발되었고, 이 품종이 오늘날까지 주 품종을 이루고 있다.

키위를 상업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재배하게 된 것은 1930년대이고, 1952년에 영국으로 처음 수출하였다. 이후 키위에 대한 재배 방법, 기술 개발 등으로 재배면적도 늘고 단수가 많아져 생산량이 늘었으며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수출이 국내 수요를 초과한 것은 1976년이다.

키위 주산지는 Bay of Plenty 지역이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부문을 담당할 협회의 필요성을 느껴 1970년에 키위 Kiwifruit Export Promotion Committee가 발족되었다.

이 협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

출업자와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고, 생산자와 수출업자도 협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 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까지 세금부과가 필요하다고 모두들 믿고 행동했다.

협회를 발전시켜 Kiwifruit Marketing Licensing Authority(KLMA)라는 법적인 조직으로 1977년에 재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KLMA로부터 수출자격을 가진 업체만이 키위를 수출할 수 있었고, 이 협회의 다른 기능은 품질 개선, 등급화, 포장규격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 노력으로 수출은 1979년에 4백만 tray에서 1987년에는 46백만 tray로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1980년대에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협회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뉴질랜드에 단일 마케팅 조직으로 마케팅 보드가 1988년 9월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수출가격이 매우 낮았다. 이는 공급이 빠르게 늘었고, 소비시장에서 키위 소비대체 과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격 하락으로 키위농가는 1992년에 은행부채가 90백만 달러에 이르러 많은 생산자가 파산했고, 키위산업은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키위산업 재건을 위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마케팅과 수출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1995년에 완료되었다. 결과 키위산업의 일대 변혁이 있었다. 마케팅 보드가 1997년에 관리 기능과 상업 기능으로 분리하였다. 제스프리는 이 보드의 자회사로 수출을 전담하고 보드 보조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키위의 수출권을 가지고 있고, 타이완, 일본, 한국, 미국, 유럽 등에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 키위를 연중 공급하기 위해 뉴질랜드산이 출하되지 않는 단경기에 다른 나라로부터 키위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등 주년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제스프리는 각 국가에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주 업무이다.

3. 뉴질랜드 정부지원정책

뉴질랜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정부 목표를 농산물 수출 확대에 두었다. 이를 위해 원예 분야는 비전통적인 수출 분야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85%까지 늘었다.

현재 농업개혁에 의해 정부의 보조는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키위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인 정부지원정책은 없고 법적지원만을 하고 있다. 산업 내에서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Kiwifruit New Zealand와 마케팅 보드 간에 수출량을 조절하여 농가에게 생산·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세금 감면 정책이 있다. 1973년에 EU에 United Kingdom이 포함됨에 따라 수출장려 차원에서 인센티브 계획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과수원 개발비용, 광고비를 지원해주고 자본가치 하락 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축시켰다.

정부 지원정책은 1980년대 중반에 모두 끝났고, 농가 수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농업 어느 부문이든 가격지지정책 및 안정화 정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

제 3 장

뉴질랜드 키위 수급 동향과 전망

1. 키위 생산·소비 동향과 전망

1.1. 생산 현황

세계적으로 키위 주요 생산국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칠레, 프랑스, 그리스 등이다. 이탈리아는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뉴질랜드와 칠레는 감소하고 있다. 2004년 이탈리아 재배면적은 2만ha, 뉴질랜드 1만 590ha, 칠레 7,800ha이다. 수출량은 이탈리아 25만 9천 톤, 뉴질랜드 23만 8천 톤, 칠레 11만 톤이다.

표 3-1. 세계 주요국 키위 재배면적 동향, 2004

단위: ha, 톤

	이탈리아	뉴질랜드	칠레	프랑스	그리스	한국
재배면적	20,000	10,590	7,800	4,464	4,400	860
생 산 량	365,000	260,080	130,000	76,336	40,000	10,277
수 출 량	259,004	238,209	110,529	30,399	16,498	-

자료: www.fao.org

표 3-2. 뉴질랜드 키위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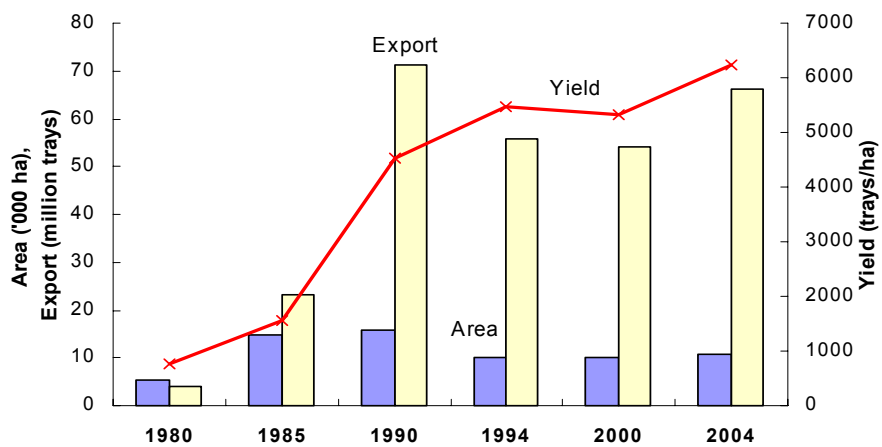
	재배면적 (ha)	단수 (kg/ha)	생산량 (톤)
1990	17,508	159,927	280,000
1995	11,873	187,821	223,000
2000	12,184	214,739	261,638
2003	12,236	210,783	257,914
2004	10,580	245,820	260,080

자료: www.maf.govt.nz

뉴질랜드 키위 재배면적은 1980년에 5천 500ha에서 1985년에는 1만 5천 ha로 5년 사이에 3배 증가했고, 1990년에는 가장 많은 면적인 1만 8천ha까지 재배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수급 균형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를 자제하면서 최근에는 1만 1천ha까지 감소시켰다.

생산량은 1990년에 28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재배면적이 안정세로 조정되면서 2004년에는 생산량이 26만 톤이었다. 이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이다.

그림 3-1. 키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자료: MAF 2004b.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 and Figures 2004. Wellington.

1980년대 후반 키위 산업이 위기가 있는 후 효율성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키위 재배면적을 33% 감소시키고, 단수를 2배 이상 증가시켜 생산량은 40%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과수원에 시험재배 연구를 통해 키위 단수를 높였고, 또 다른 방법은 상시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계약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의 효율을 높였고, 농지를 남겨놓고 2차 3차 산업으로 빠져나간 노동자의 농지를 이용하여 규모 확대를 모색했다.

키위의 선별·포장 업체가 1980년대 초에 670개소에서 2004년에는 98개로 감소하였고, 냉동업체 수는 1994년에 126개소에서 2004년에는 86개로 감소하는 등 규모가 커져 규모의 경제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포장, 수송 그리고 브랜드가 발달했다.

키위의 품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표 3-3>과 같다. 키위의 품종은 Green Kiwi, Green Organic Kiwi, Gold Kiwi로 나뉜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Green 키위가 1만ha로 전체 키위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Gold 키위는 14%, Green Organic 키위는 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인 골드 키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단수가 5,800kg일 때, Green 키위는 이와 비슷하고 Gold 키위는 105.5%로 약간 많은 편이며 Green Organic 키위는 73%로 낮다. 단수는 키위 주산지인 Bay of Plenty 지역이 높다. 특히 Te Puke 지역의 단수는 3개 품종 모두 다른 지역보다 높다.

뉴질랜드 키위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품종의 변화로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다.

키위 2004년 재배면적은 2003년과 변화가 적었으나, 단수의 증가로 생산량이 많았다. 2004년 단수는 Green 키위는 전년에 비해 15% 증가, Gold 키위는 31% 증가, Organic 키위는 17% 증가로 총 21% 증가하였다.

표 3-3. 키위 품종별 재배면적 및 생산실적, 2003.7

		Green		Green Organic		Gold		Total	
		Ha	Tray /ha	Ha	Tray /ha	Ha	Tray /ha	Ha	Tray /ha
Northland		395	5,810	3	1,134	202	7,381	600	6,316
Auckland		469	5,471	2	1,245	60	6,579	531	5,580
Bay of Planty	Katikati	1,120	5,456	33	4,229	153	5,578	1306	5,439
	Opotiki	412	6,972	11	5,070	109	6,189	532	6,772
	Tauranga	1,315	5,610	245	4,465	220	5,971	1,780	5,497
	Te Puke	3,238	6,721	109	4,896	541	6,349	3,888	6,618
	Waihi	158	3,745	7	4,365	39	2,888	204	3,602
	Whakatane	334	3,855	5	4,166	21	2,350	360	3,772
Waikato		194	4,453	94	4,008	31	4,379	319	4,315
Poverty Bay		183	4,094	12	777	39	5,643	234	4,182
Hawke's Bay		123	4,351	15	757	21	5,610	159	4,178
Lower North Island		133	4,461	5	3,511	0	0	138	4,427
South Island		585	4,681	18	3,261	32	4,244	635	4,619
Others		1,356	5,813	88	4,210	230	6,085	1,674	5,766
Total		10,015	5,814	647	4,211	1,698	6,085	12,360	5,767

자료: MAF 2004b.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 and Figures 2004. Wellington.

키위 2004년산 생산비는 Tray 당 3.29달러(NZ), 1kg당 0.82달러, 1kg당 610원이다. 비목별로 생산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순서는 노임이 43%, 포장비 10%, 농기계 수선비 9%, 농구비와 비료비가 6% 순이다.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하락했다. 2004년산 키위농가의 농가 수취가격이 2003년산에 비해 13% 감소하였다. Green 키위는 전년에 비해 15% 하락한 \$31,872/ha, Gold 키위는 전년에 비해 9% 증가한 \$49,358/ha, Green Organic 키위 가격은 12% 하락한 \$33,462/ha였다.

표 3-4. 뉴질랜드 키위 생산비

단위: NZ\$, %

	2004/05		2005/06		
	cost/ha	cost/tray	cost/ha	cost/tray	%
Wage	11,100	1.46	10,100	1.40	42.9
Picking wages	2,288	0.3	2,300	0.32	9.8
ACC	520	0.07	460	0.06	1.8
Electricity	185	0.02	200	0.03	0.9
Spray and chemical	1,370	0.18	1,370	0.19	5.8
Pollination	1,290	0.17	1,290	0.18	5.5
Fertiliser	1,160	0.15	1,160	0.16	4.9
Vehicle cost	1,600	0.21	1,540	0.21	6.4
Repairs and maintenance	2,600	0.34	2,100	0.29	8.9
Rate	650	0.09	654	0.09	2.8
Communication Cost	480	0.06	480	0.07	2.1
Insurance	395	0.05	400	0.06	1.8
Accountancy	660	0.09	680	0.09	2.8
Legal and consultancy	220	0.03	260	0.04	1.2
Other Administration	190	0.02	160	0.02	0.6
Other expenditure	360	0.05	360	0.05	1.5
Total	25,068	3.29	23,514	3.26	100.0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ituation and outlook for horticulture, 2005.

표 3-5. 키위 품종별 농가 수취가격

단위: \$/ha

	ZESPRI TM GREEN	ZESPRI TM GREEN ORGANIC	ZESPRI TM GOLD
2004	31,872	33,462	49,358
2003	37,637	37,988	45,503
2002	32,455	32,293	42,857
2001	29,748	25,842	27,415

자료: www.maf.govt.nz/mafnet/rural-nz/statistics-and-forecasts

1.2. 생산 전망

키위 재배면적은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단수의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 생산량이 26만 톤에서 2008년에는 31만 6천 톤으로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출이 2004년에 23만 8천 톤에서 2008년에는 28만 9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생산량 증가로 농가 수취가격은 2004년보다 낮은 Tray당 4.8달러로 전망된다.

2. 키위 유통부문의 동향

2.1. 유통담당 주체

키위에 대한 수출전담기관은 Zespri NZ가 있다. 일반 품목은 정부나 유관 기관 혹은 업종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나 설비지원 혹은 수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키위만은 대규모 재배업자들도 직접적인 수출은 금지되어 있는 특별한 품목이다.

국가의 중점 수출육성품목 등과는 차원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품목은 정부나 관련 단체 조합 등에 의한 각종 지원과 수출 유관기관에 의한

표 3-6. 키위 생산 · 수출 · 가격 전망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량	1000t	260	326	296	308	316
수출량	1000t	238	299	271	282	289
수출량	mil trays	66.2	83.0	75.3	78.3	80.3
수취가격	\$/tray	6.16	4.34	4.41	4.48	4.82

주: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2004, 2005

수출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키위는 직접적인 지원기관은 없고, 굳이 유관 기관 혹은 지원기관을 찾는다면, The 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과 Customs New Zealand이다.

The 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는 호주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동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산하에 Zespri NZ가 수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다.

Customs New Zealand은 수출정보 및 절차 등에 대한 조언을 해 주고 있어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세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어 유관 기관이나 지원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는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해당되는 정부부처로서 재배품목 선택, 재배면적, 수출지역 등에 관한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고 키위 수출은 Zespri NZ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도 동일한 과정으로서 The 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에 의해 관리하나 실제 수출실무는 Zespri NZ가 총괄담당하고 있다.

2.2. 유통 경로

대외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채널도 소매유통단계 이전까지는 Zespri NZ가 전담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정책 결정, 마케팅 등 전반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과 시장전략까지도 전담하고 있다.

생산자가 생산한 키위는 포장작업장으로 전량 이동하고, 작업을 마친 키위는 저온저장고에 입고된 후 유통전문업체에 넘겨진다. 제스프리는 유통전문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지역별 유통체인망에 의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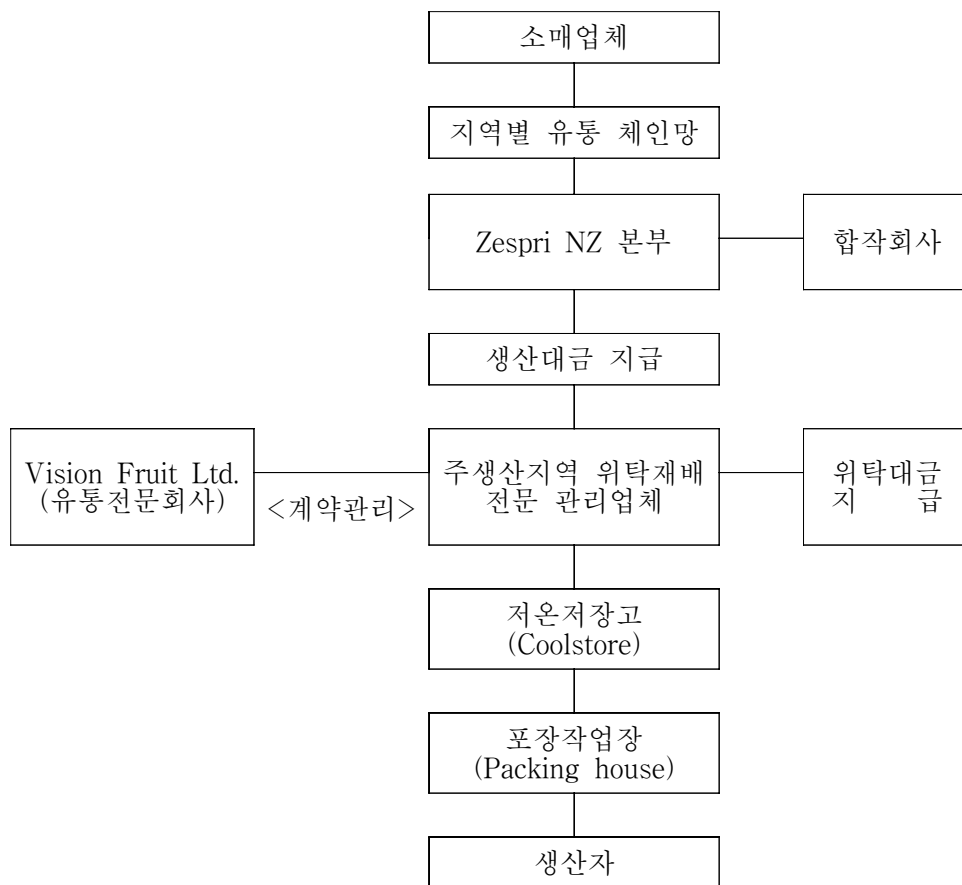
2.3. 키위 가공

수출을 위해서는 포장이 매우 중요하다. 키위는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제품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라벨링(Labeling)이 필수적이다. 라벨링은 물론 세관에서 규정하는 수출서류의 요건에 따라

표기되어야 하는데 수출 대상국가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달라 라벨링도 다르다. 자유로이 수출되는 것이 아닌 국가기관 독점의 수출 제한품목인 관계로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정도 까다로워 국가별로 일률적이지 않다.

키위 수출운송수단은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운송 과정에서 최적조건 유지를 위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저장시설(Coolstores)에 보관된 온도로 운송되어야 한다. 물품 인수 시 고려 사항은 과숙되지 않은 완숙한 키위이어야 하며, 외관이 깨끗하고 균일한 형태인지, 부패나 내부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림 3-2. 뉴질랜드 키위의 유통경로



자료: www.visionfruit.com

품종별로 유통기간은 Green 키위의 경우 냉장보관으로는 28일, 상온에서는 3~7일이며, Gold 키위는 이보다 짧은 냉장보관 14일, 상온에서 Green 키위와 같은 3~7일이다. 키위는 숙성 시 에틸렌을 발산하므로 다른 과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 키위 수출입 동향과 전망

3.1. 수출입 실적

키위 수출은 1995년에 17만 톤을 수출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 26만 톤을 수출했다. 최근 몇 년간 안정적으로 26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수입은 1996년 이후 소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1천 톤 정도다. 이는 키위 생산이 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주년 공급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단경기 때 북반구에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캘리포니아)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재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표 3-7. 뉴질랜드 키위 수출입 동향

	수입		수출	
	수입량(톤)	수입액(1000\$)	수출량(톤)	수출액(1000\$)
1990	0	0	237,474	316,508
1995	0	0	173,254	203,094
1996	11	9	213,266	271,891
1997	56	77	220,185	262,259
1998	13	8	230,639	229,335
1999	435	652	196,449	111,226
2000	182	208	249,509	268,427
2001	353	371	245,045	239,387
2002	537	771	231,259	263,145
2003	1,081	1,696	238,209	286,092

자료: <http://www.fao.org/>

수출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EU12개 국가에 수출량의 47%, 일본에 30%, 한국에 6%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별 순위는 EU12 국가가 1위, 일본 2위, 한국이 3위이다.

표 3-8. 뉴질랜드 키위 국별 수출 실적

	수출국가	천NZ\$ (FOB)			비율			증감률 02/04
		2002년	2003년	2004년	2002	2003	2004	
	Total	618,446	539,014	658,822	100.0	100.0	100.0	6.5
1	EU	296,261	237,312	309,044	47.9	44.0	46.9	4.3
2	Japan	168,911	167,257	201,618	27.3	31.0	30.6	19.4
3	Korea, South	21,911	27,353	40,996	3.5	5.1	6.2	87.1
4	Taiwan	39,519	38,413	28,932	6.4	7.1	4.4	-26.8
5	Australia	30,593	22,334	26,799	4.9	4.1	4.1	-12.4
6	United States	28,805	21,483	26,568	4.7	4.0	4.0	-7.8
7	Hong Kong	10,746	7,881	7,671	1.7	1.5	1.2	-28.6
8	China	5,895	4,328	3,785	1.0	0.8	0.6	-35.8
9	Saudi Arabia	4,171	2,363	1,886	0.7	0.4	0.3	-54.8
10	Kuwait	1,699	1,076	1,880	0.3	0.2	0.3	10.7
11	Mexico	1,918	729	1,818	0.3	0.1	0.3	-5.2
12	Singapore	2,622	3,681	1,790	0.4	0.7	0.3	-31.7
13	Arab Emirates	1,285	989	1,214	0.2	0.2	0.2	-5.5
14	Malaysia	1,135	1,160	1,098	0.2	0.2	0.2	-3.3
15	Canada		313	850	0.0	0.1	0.1	0.0
16	Pacic Island	279	416	586	0.0	0.1	0.1	110.0
17	South Africa	679	514	453	0.1	0.1	0.1	-33.3
18	Reunion	264	260	430	0.0	0.0	0.1	62.9
19	New Caledonia	92	154	397	0.0	0.0	0.1	331.5
20	Indonesia	408	146	210	0.1	0.0	0.0	-48.5
21	Mauritius	169	123	170	0.0	0.0	0.0	0.6
22	Bahrain	264	168	165	0.0	0.0	0.0	-37.5
23	Thailand	117	114	142	0.0	0.0	0.0	21.4
24	India	113	136	118	0.0	0.0	0.0	4.4
25	Egypt	120	114	85	0.0	0.0	0.0	-29.2
26	Russia	359	119	65	0.1	0.0	0.0	-81.9
27	Israel	74	67	37	0.0	0.0	0.0	-50.0
28	Philippines			14	0.0	0.0	0.0	0.0
29	Kenya	29			0.0	0.0	0.0	-100.0
30	others	8	11	1	0.0	0.0	0.0	-87.5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

2003년 키위 수출액은 5억 3,900달러에서 2004년에는 6억 5,600달러로 22% 증가하였다. 2004년 품종별 수출액은 Green 키위가 75%로 가장 많고, Gold 키위 19%, Organic 키위는 4% 순이다.

Green 키위와 Organic 키위의 수출 실적은 전년에 비해 1% 감소하였고, Gold 키위는 2%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Gold 키위는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고 있고 있으며, Green 키위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Organic 키위는 단수가 적어 농가가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다.

3.2. 해외시장 수출 전략

뉴질랜드 키위에 대한 독점적인 수출기관인 Zespri New Zealand는 자사 브랜드로 각국에 주년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스프리는 키위 수입국에 대한 수요 공급을 예측하여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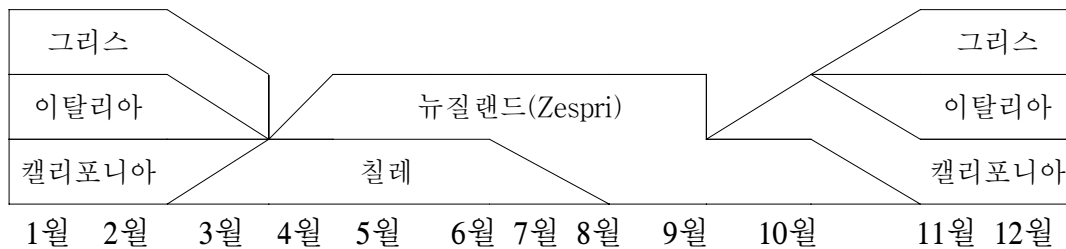
키위는 뉴질랜드산을 위주로 수출하되,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수요공급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 밖의 주요 생산국인 칠레, 미국(캘리포니아) 및 이탈리아와 그리스로부터도 일정량을 수입하여 자사 브랜드로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표 3-9. 키위 품종별 수출액

구 분	2003		2004		비중 증감
	백만NZ\$	비중	백만NZ\$	비중	
GREEN	410	76.0	492	75.0	-1.0
GREEN ORGANIC	27	5.0	26	4.0	-1.0
GOLD	92	17.0	125	19.0	2.0
Other Grades	11	2.0	13	2.0	-
Total	539	100.0	656	100.0	-

주: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2004, 2005

그림 3-3. 해외 주요 키위 공급원



자료: www.oppyproduce.com/products/kiwifruit.htm

3.3. 수출 형태 및 규격

수출품에 대한 규격, 완숙정도 및 외형상 기준 등은 수출 대상국과 상황에 따라 다른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지역은 해당국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표준(Specific Kiwifruit Standards)이 별도로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의 경우도 요구하는 표준이 있을 경우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감안 시 현재 일정한 표준은 없다. 다만 대부분 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살충제 잔류 허용 기준(Pesticide Residue Standards) 등도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다소 상이해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요구하는 표준을 수출국인 뉴질랜드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는 또한 GATT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행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비준국이 자 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협정국으로서 모든 키위 수출에 해당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수출 키위에 대하여 뉴질랜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New Zealand Bio-Gro Standards도 준수하고 있고, Zespri New Zealand는 ISO 9001을 획득, 관련 표준을 따르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키위 수출은 정부기관인 Zespri New Zealand가 독점하고 있어 외국에서는 동 기관을 통한 수입 외에는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표 3-10. 품종별 포장 방법

	포장방법	무게 (lbs)	상자규격
ZESPRITM GREEN & GOLD Kiwifruit & ORGANICS	Single Layer Tray	7.88	17.25×11.75×7.5"
ZESPRITM GREEN Kiwifruit & GREEN ORGANIC	Modular Nulk	22.38	15.5×11.75×7.5"
ZESPRITM GOLD Kiwifruit	Modular Loose	12.96	15.5×11.75×5"
ZESPRITM Kiwifruit & GREEN ORGANIC	Retail Bin	134.23	39.5×23.5×12.25"
California,Green /Hayward	Single Layer Tray	7.88	19.75×12×2.25"
Chilan Green / Hayward	Volume Fill	22.05	19.75×11.88×6"

자료: www.oppyproduce.com/kiwifruit_packaging.cfm

상품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품종별로 그리고 수출 물량 및 포장재료 등에 따라 포장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며 Zespri 키위의 주요 포장방법은 <표 3-10, 그림 3-4>와 같다.

3.4. 수출전망

키위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뉴질랜드 농림부에서 전망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매년 생산량의 92%를 수출하고 있다. 2004년 26만 톤 생산에 23만 8천 톤을 수출하고 2008년에는 31만 6천 톤을 생산하여 생산량의 92%인 28만 9천 톤을 수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Tray로 하고 있으며, Tray당 무게는 약 4kg이다. 2004년에 6만 6천 Tray를 수출하고 2008년에는 8만Tray를 수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은 2004년에 Tray당 6.16달러(1.54달러/kg, 1,115원/kg)에서 2008년에는 4.82달러로 가격은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수출량 증가보다 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 키위 품종별 포장 형태

ZESPRI™ GREEN & GOLD
Kiwifruit & ORGANICS



ZESPRI™ GREEN Kiwifruit
& GREEN ORGANIC



ZESPRI™ GOLD Kiwifruit



ZESPRI™ Kiwifruit &
GREEN ORGANIC



California, Green / Hayward



CHilean Green / Hayward



표 3-11. 키위 생산·수출·가격 전망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량	1000t	260	326	296	308	316
수출량	1000t	238	299	271	282	289
수출량	mil trays	66.2	83.0	75.3	78.3	80.3
수취가격	\$/tray	6.16	4.34	4.41	4.48	4.82

주: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2004, 2005

2004년에 수확한 키위는 품질이 좋은 골드 키위 재배면적이 19% 증가하였다. 단수는 2005/06년 단수는 평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총 생산량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까지 생산량은 증가하고 수출가격은 최근에 높았던 것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제스프리는 향후 칠레, EU, 미국 등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시장에서도 중국이 키위를 생산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뉴질랜드산과 중국산이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3-5. 키위 수출량과 농가 수취가격



Source: MAF, 2004a

제 4 장

한 · 뉴질랜드 키위산업 협력 가능성

1. 한국의 키위 수급 현황

1.1. 생산 현황

한국 키위 재배는 1977년부터 일부 삽수와 극소량 키위 묘목이 도입되었고, 본격적인 키위 묘목 도입은 1978년이며, 3년이 지난 1981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다.

한국 키위 재배면적은 1996년에 1,487ha까지 증가한 후 이후 감소하여 2003년에는 873ha이다.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변화에 따라 1998년에 1만 4,662톤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만 490톤이다.

국내 키위 주산지는 전남(59%), 해남, 완도, 보성, 장흥, 고흥, 순천, 진도, 경남(21%), 제주도 18%이다. 주 생산시기는 10~11월에 생산되어 익년 5월까지 유통된다.

표 4-1. 한국의 키위 생산 현황

단위: ha, 톤

	재배면적	생산량
1991	846	6,420
1992	989	8,263
1993	1,131	8,538
1994	1,379	8,741
1995	1,470	12,184
1996	1,487	12,862
1997	1,383	14,169
1998	1,270	14,662
1999	1,106	13,188
2000	1,041	13,825
2001	886	12,705
2002	865	10,974
2003	873	10,490
2004	860	10,277

주: 2004년은 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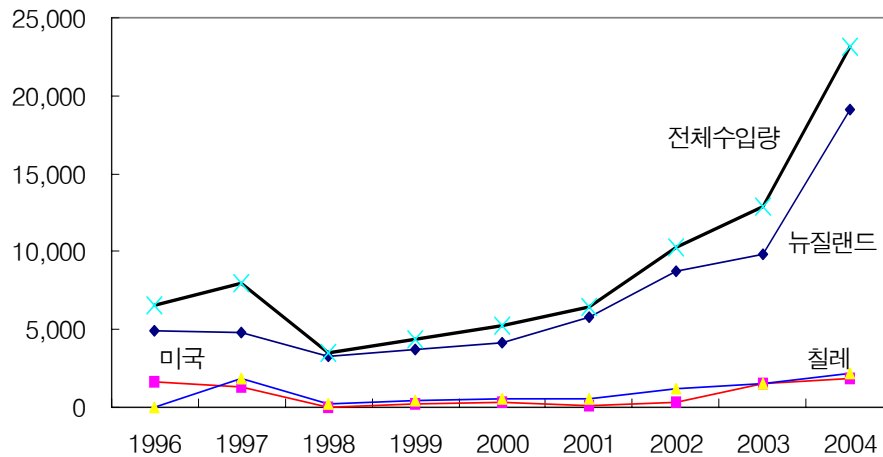
1.2. 키위 수입 현황

키위는 1990년에 수입자유화되었으며, 식물방역법상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뉴질랜드, 칠레 등에서 수입이 가능해졌다.

한국 키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별로 수입량을 보면 뉴질랜드가 83%로 가장 많고, 미국, 칠레 순이다. 2004년까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최근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5년에는 칠레산 키위 수입이 증가하고,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4-1. 국별 키위 수입량 변화



자료: www.kita.net

2004년 수입량은 2003년에 비해 80% 증가한 2만 3,101톤이다. 2004년 수입 단가는 뉴질랜드산이 2.00달러, 미국산 1.95달러, 칠레산 1.35달러로 뉴질랜드산 단가가 가장 높다. 그러나 품질 경쟁력은 칠레산보다 우위에 있다.

표 4-2. 한국의 키위 수입량

단위: 톤, 달러/kg

	뉴질랜드		미국		칠레		전체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1996	4,875	1.85	1,648	1.97	-	-	6,522	1.88
1997	4,827	1.86	1,327	2.22	1,845	1.39	7,999	1.81
1998	3,234	1.49	0	-	237	1.50	3,471	1.50
1999	3,673	1.76	264	1.81	446	1.32	4,383	1.72
2000	4,186	1.69	356	1.99	571	1.31	5,228	1.65
2001	5,762	1.47	89	1.67	565	1.15	6,417	1.44
2002	8,714	1.66	311	1.76	1,209	1.13	10,233	1.60
2003	9,803	1.84	1,510	1.82	1,536	1.14	12,849	1.75
2004	19,139	2.00	1,831	1.95	2,131	1.35	23,101	1.93

자료: www.kita.net

표 4-3. 한국의 키위 수출량

단위: 톤, 달러/kg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전체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1997	-	-	8.4	1.4	-	-	-	-	8.4	1.4
1998	192.2	1.9	22.3	1.4	23	1.3	7.1	1.8	244.6	1.8
1999	103.0	2.1	-	-	-	-	-	-	103.0	2.1
2000	1.1	1.8	2.2	1.4	-	-	-	-	3.3	1.5
2001	6.6	1.5	4.4	2.7	-	-	-	-	11	2.0
2002	54.6	1.0	-	-	-	-	-	-	54.6	1.0
2003	-	-	-	-	-	-	-	-	-	-
2004	-	-	-	-	-	-	-	-	-	-
2005	-	-	-	-	-	-	-	-	-	-

자료: www.kita.net

국별 수입 시기를 <표 4-4>에서 보면, 뉴질랜드산 키위는 5~11월, 미국산 키위는 10~3월, 칠레산 키위는 4~10월에 주로 수입된다. 국내산은 10~11월에 수확하여 익년 5월까지 유통되므로 미국산 수입 시기와 비슷하다.

칠레산 키위는 국내산 유통기간인 4~5월만 경합되고, 같은 기간에 수입되는 뉴질랜드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약하지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표 4-4. 키위 국가별 수입 시기 및 국내산 출하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뉴질랜드												
미국												
칠레												
국내산												

자료: www.kita.net

표 4-5. 키위 국가별 월별 수입량 비중, 2004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뉴질랜드	-	-	-	-	13.6	11.3	8.2	8.4	17.2	14.4	9.7	
미국	1.1	1.7	1.1							1.0	1.1	1.9
칠레				1.8	1.2	2.5	1.3	1.1	0.2	1.2		

자료: www.kita.net

국별 수입량은 뉴질랜드가 83%로 가장 많고, 칠레 9%, 미국 8% 순이다. 월별로 수입량을 보면 5월에서 10월까지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생산 시기인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의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으로 일부 수입되고, 단경기인 5월에서 10월까지의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이 함께 수입되므로 한국 내에서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이 경쟁 관계에 있다.

1.3. 키위수급

한국의 키위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은 배면적의 감소로 적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출하기 때 미국산과 국내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하면서 미국산이 수입되고 있다.

표 4-6. 한국의 키위 수급 현황

단위: ha, 톤, %

	재배면적	공급량				자급률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공급량	
1996	1,487	12,862	6,522	-	19,384	66.4
1997	1,383	14,169	7,999	8	22,160	63.9
1998	1,270	14,662	3,471	245	17,888	82.0
1999	1,106	13,188	4,383	103	17,468	75.5
2000	1,041	13,825	5,228	3	19,050	72.6
2001	886	12,705	6,417	11	19,111	66.5
2002	865	10,974	10,233	55	21,152	51.9
2003	873	10,490	12,849	-	23,339	44.9
2004	860	10,277	23,101	-	33,378	30.8

자료: 농림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산 키위 단경기 때는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이 수입될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이 4~11월에 국내 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하게 된다.

수요가 주년화됨에 따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량은 매년 급속히 증가했다. 2004년의 경우 키위 자급률은 30%밖에 되지 않으며 매년 자급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키위 소비는 여름이 성수기이며, 대부분이 별도의 가공이나 요리 없이 사과나 배를 깎아 먹듯이 바로 먹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소비특성은 별도의 가공이나 요리 없이 먹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2가지 정도 특이사항이 발견되고 있다. 하나는 다른 식품, 즉 건강식품(Health Extracts) 등에 사용되며, 또 하나는 다른 요리에 첨가해서 새로운 맛을 내게 하는 등, 용도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Zespri New Zealand도 최근 들어 키위의 소비 촉진을 위해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요리 방법의 개발로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키위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의 키위 수급·수출입 전망

국내 소비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여 수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밖에 없다.

표 4-7. 키위 1인당 소비량, 2003

단위: kg/1인당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뉴질랜드	칠레	일본	한국
1.70	1.65	1.41	1.05	1.00	0.62	0.48

자료: MAF, 2004b.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 and Figures 2004. Wellington.

키위 1인당 소비량은 이탈리아가 1.7kg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그리스, 뉴질랜드, 칠레, 일본, 한국 순이다. 한국 1인당 소비량을 2014년에 현재 일본 수준인 0.62kg을 소비할 경우 수요량은 4만 4천 톤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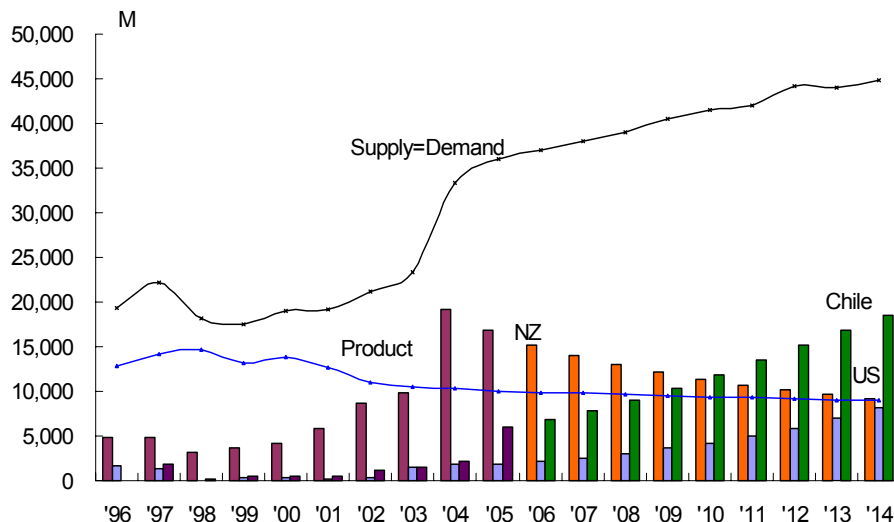
키위는 UR 협정 당시 기준관세 50%, 양허세율 45%이었다. 2004년 키위 수입관세는 45%이고 2005년에도 45%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조정될 것이다.

한·칠레 FTA 협상이 2004년 4월 1일자로 체결되면서 10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뉴질랜드산 키위의 2005년 관세는 45%이나, 칠레산은 40.5%, 10년 후 2014년에 뉴질랜드산 키위 관세는 40.5%, 칠레산은 0%이다.

향후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칠레산은 뉴질랜드산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키위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칠레산과 뉴질랜드산과의 가격 차이는 95년에 75%였으나, 최근 가격 차이가 커져 2004년에는 68%이다.

그림 4-2. 한국 키위 수급 전망



주: 뉴질랜드와 칠레의 2006년 이후 예상수입량은 전문가 조사치임.
자료: www.kita.net

칠레산과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칠레와 2004년 4월 1일자로 FTA가 체결되면서 2005년 수입량 변화가 크다.

2004년 키위 자급률이 30%, 수입의존도가 70%이다. 수입량 중에서 뉴질랜드 비율이 83%, 미국 8% 그리고 칠레가 9%였다. 한·칠레 FTA협상 체결 이후 2005년은 키위 자급률이 29%, 수입의존도가 71%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수입량 중에서 뉴질랜드 비율이 68%로 감소하였고 칠레가 24%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14년 수입량은 뉴질랜드산이 9천 톤, 칠레산이 1만 8천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3. 한·뉴질랜드 키위산업 부문별 협력

3.1. 고품질 Gold 키위 생산

Zespri New Zealand는 제주 지역에서 Gold 키위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을 점점 확대해 가면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키위를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그림 4-8. 한국의 키위 수급 전망

단위: 톤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뉴질랜드	미국	칠레	
1996	12,862	4,875	1,648	-	19,385
2000	13,825	4,186	356	571	18,938
2003	10,490	9,803	1,510	1,536	23,339
2004	10,277	19,139	1,831	2,131	33,378
2005	10,000	16,775	1,850	5,931	34,556
2010	9,414	13,294	4,232	12,826	39,765
2014	8,970	9,199	8,206	18,433	44,807

주: 뉴질랜드와 칠레의 2006년 이후 예상수입량은 전문가 조사치임.

자료: www.kita.net

3.2. 국내 단경기 때 안정적 공급망 구축

키위 소비는 주년 소비체제로 전환되었다. 한국산 키위가 생산되지 않을 때 제스프리(Zespri)는 한국의 참다래유통사업단과 연계하여 뉴질랜드산 키위를 안정적으로 한국에 공급한다.

3.3. 수요 확대

뉴질랜드 제스프리(Zespri)는 키위 요리방법과 시식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이제 건강식품(Health Extracts)으로 소비하기도 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수요를 확대해 가고 있다.

3.4. 국내 유통망 이용 및 수급조절

국내 단경기 때 수입된 키위를 유통망이 확보된 참다래유통사업단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가고, 국내산 키위와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Gold 키위가 같은 시기에 생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박현태, Allan Rae. 2004. 『뉴질랜드의 원예산업의 동향과 전망』. 연구 자료 D1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승렬, 최세균. 1996.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연구 보고 R3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운천. 2003. 『거북선 농업』.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 Berry, P. 1997. "The establishment of kiwifruit growing in New Zealand and the development of a research programme." *Acta Horticulturae* 444: 33-36.
- Earp, R.W. 1990. "Export and Marketing of New Zealand Kiwifruit." Ch. 18 in Warrington, I.J and G.C. Weston (eds.). *Kiwifruit Science and Management*, New Zealand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Wellington.
- Ferguson, A.R. and E.G. Bollard. 1990. "Domestication of the Kiwifruit." Ch. 8 in Warrington, I.J and G.C. Weston (eds.). *Kiwifruit Science and Management*, New Zealand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Wellington.
- MAF. 2004a.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Wellington.
- MAF. 2004b.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 and Figures 2004*. Wellington.
- MAF. 2005a.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Wellington.
- MAF. 2005b.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 and Figures 2005*. Wellington.
- Smith, R. 2003. "kiwifruit the spark which became an industry." *The Orchardist*, April.
- www.fao.org
- www.fruitgrowers.org.nz
- www.hortreserch.co.nz
- www.kita.net
- www.maf.govt.nz
- www.stats.govt.nz
- www.zespri.co.kr
- www.zespri.com

D201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5. 12.

발 행 2005.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태광인쇄 02-468-9430 <http://www.tprint@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